

총선 낙달 앞...세갈래 야권, 호남민심 잡기에 성패 달려

새정치 앞날과 야권재편 시나리오

연쇄탈당 위기 새정치 대혼란

총선구도 一與多野 가능성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결행함에 따라 야권이 정계개편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비주류·비노(비노무현)·호남 출신 현역 의원들의 연쇄 탈당으로 분당 사태로 치달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연합 주류 측은 정의당 등과의 연대를 모색하며 위기 돌파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당 밖에서 이미 신당을 창당 중인 무소속 전정배·박주선 의원 등이 안 전 대표를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의 영입이나 연대를 모색하며 신당 세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안 전 대표의 탈당에 따라 야권은 문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노와 86그룹이 중심이 된 기존 새정치연합과 안 전 대표와 전정배·박주선의 의원 등이 주도하는 신당 세력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 대표 측은 당혹스러움 속에서도 안 전 대표 탈당의 여파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당을 추스르면서 예정된 일정대로 총선 준비를 밀어붙일 것이 확실시된다. 문 대표가 안 전 대표의 탈당 선언 후 “호랑이 등에서 내릴 수 없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내 상황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당장 연쇄 탈당 가능성이 높다. 당장 대규모 탈당이 이어질지는 미지수지만 순차적으로 비주류 측의 탈당이 내년 초까지 계속될 공산이 크다. 또 탈당을 결행하지 않더라도 비주류 측에서는 당 분열의 책임을 문 대표에게 몰으며 문 대표의 퇴진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대표는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세력화’를 공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한 만큼 국회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탈당세력 최대화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미 신당 창당을 진행 중인 세력과 합당이나 연대를 모색하며 세 불리기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안 전 대표가 당장 기존 신당과 손을 잡기 보다는 제3지대에서 자체적인 동력을 확보하고 전국정당으로서 외연을 넓히는 작업을 한 뒤 통합 수순을 밟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 과정에서 안 전 대표는 새정치연합 내 소수 규 전 상임고문, 김한길 전 공동대표, 박영선 전 원내대표, 김부겸 전 의원 등의 신당 동참을 요청하는 한편 지난해 민주당과 합당 전 창당작업을 함께했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김성식 전 한나라당 의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 오거돈 전 해

양수산부 장관 등과의 연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다.

분열된 야권은 우선 호남 민심을 놓고 치열한 구애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민심을 얻는 쪽이 야권의 대주주 역할을 맡을 공산이 크고, 나아가 내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안 전 대표 입장에서는 호남 민심을 많이 얻을수록 연쇄 탈당 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

내년 총선 전까지 분열된 야권은 민심을 얻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할 것이지만 총선 직전 합종연횡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단 내년 초에 후보 단일화나 당대당 통합 문제가 화두로 다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안, 정계입문서 탈당까지

安風 일으키며

혜성처럼 등장

3년3개월간

틀러코스터 정치행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가 13일 탈당을 결행하기까지 정치권 입문 후 그의 정치 행로는 틀러코스터와도 같았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안풍(安風)을 일으키며 혜성처럼 정치권에 등장한 후 3년3개월의 짧은 정치경력이지만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 부상과 단일화 등 누구보다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안 전 대표가 정치적으로 부상한 것은 2011년 9월 서울시장직 도전 의사를 내비치면서부터다. 당시 안 전 대표는 지지율은 상당했지만 박원순 변호사에게 후보 자리를 전격 양보하면서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이후 정치 관련 언급을 자제하던 안 전 대표는 2012년 9월 19일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현실정치 무대의 전면으로 나섰다. 그는 11월 23일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진통 끝에 후보직을 던지고 말았다.

대선 당일 미국으로 출국한 안 전 대표는 이듬해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에 첫 진입했고 이후 1년 가까이 독자 신당 창당을 준비하며 정치구도를 흔들 태풍의 진원지로 성장했다. 그러나 안 전 대표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급작스럽게 민주당과 통합하면서 정치 입문 후

안철수 의원 정계입문부터 탈당까지

2011년
9.6 안철수 서울시장 선거 불출마 및 박원순 후보와 후보단일화 발표
10.26 박원순,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선

2012년
9.19 안철수, 대선 출마 선언
11.23 안철수 대선후보 사퇴, 문재인 야권 단일후보 확정
12.19 안철수 미국행, 문재인 후보 대선 패배

2013년
4.24 안철수,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 당선
5.22 안철수 싱크탱크 '정책네트워크' 내일 창립, 독자세력화 시시
11.28 안철수, 신당창당 준비기구 '새정치민주연합' 출범

2014년
1.24 민주당 김한길 대표-무소속 안철수 의원, 오찬 회동
2.17 안철수 측 새정치민주연합, 새정치연합 창준위 결성
3.2 김한길-안철수, 제3지대 신당 창당 통한 통합 발표
3.16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준위 발기인 대회
3.25 안철수 측 새정치연합 해산
3.26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 및 민주당과 합당,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
6.4 지방선거
7.30 재·보궐선거 참패
7.31 안철수, 김한길, 대표직 동반 사퇴

2015년
2.08 새정치연합 전당대회, 문재인 신임 당 대표 선출
5.20 안철수, 문 대표의 혁신위원장 제안 거절
7.15 안철수, 국정원 해경 의혹 관련 당 근정조치사유위원직 수락
9.09 문재인 '개인' 용역대 부패 방지법 발의 촉구
9.13 안철수, 중앙위원회 연기 및 재선합류 발표 철회 요구
9.16 중앙위원회, 혁신안 통과 및 문재인 재선안 확인
9.20 안철수, 정 부패해결 관련 혁신안 발표
10.11 문재인, '국민 진보' 관련 혁신안 발표
10.18 문재인, '국민 진보' 협동조합-새누리당 부패방지, 안철수 비판
11.18 문재인,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 제안
11.29 안철수, 문연대 연대 거부-문·안 참여 혁신연대 약재판
12.3 문재인, 안철수 10대 혁신안 당원에게 인영키로 결정
12.6 안철수, 혁신연대 거부 문재인에게 재추기-취부통합
12.8 문재인, 안철수 재추기 재요구 사실상 거부
12.12 문재인, 안철수 자택 상하 방문
12.13 안철수, 탈당 기자회견

19명중 13명 비주류·중도...황주홍·김동철 탈당 1순위

광주·전남 의원들 선택은?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전 공동대표의 탈당 이후 비주류와 호남을 중심으로 한 연쇄 탈당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높은 가운데 야권 뒷받침 호남지역 의원들의 향후 거취가 주목된다.

특히 지역 정치권이 반(反) 문재인 정서가 강한 만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안 전 대표의 탈당 여파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대표의 당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문병호 의원은 13일 “이미 탈당 결심을 굳혔고, 이번주부터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연쇄 탈당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제 본격적으로 탈당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라며 “이번 주중 수도권과 호남의 현역 의원 5~10명이 1차 탈당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문 의원은 “연말까지 2차, 3차 탈당이 이뤄지면

교섭단체 구성에 필요한 20명 규합은 문제가 없다”며 “최대 30명까지도 내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8명)·전남(11명) 지역구 의원 19명 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광주 박주선·전정배(무소속) 의원, 전남 이정현(새누리당) 의원 등 3명을 제외한 16명이다. 이 가운데 강기정·유운근 의원, 최근 호남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근 의원 정도를 제외한 13명은 비주류 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특히 황주홍 의원은 최근 당무감사를 거부하고 문 대표에 대한 정계를 정원할 만큼 대립각을 세웠고, 김동철 의원도 문 대표 사퇴를 촉구하는 등 그동안 줄곧 문 대표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내 두 의원이 탈당 1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황 의원은 조만간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주승용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 등도 거취가 주목된다. 최근 결성된 비주류 모임인 구당(敎黨)모임 소속

에도 많은 광주·전남의원들이 참여해 있는 가운데 일부 멤버들의 탈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모임에는 김동철·김영록·이윤석·장병준·박해자·황주홍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의원을 비롯한 유성열·김영환·김장일·신학용·노웅래·문병호·최원식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 김동철·황주홍 의원을 비롯한 유성열·최재천·최원식 의원의 탈당설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장에 대규모 탈당사태가 생기는 것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신당 통합 상황, 의원 개인별 공천 가능성 등을 살피며 당분간 여론 추이를 살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한편, 비주류 측의 구당모임이 이날 밤 9시 대책 모임을 갖기로 했고, 호남 의원들도 14일 저녁 긴급 모임을 소집하는 등 의원들은 그룹별로 향후 대응책 논의에 나서고 있어 어떤 논의의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HNT 하나투어

제 15회 하나투어 결혼 박람회

2016. 1. 23(토) ~ 24(일) 11:00 ~ 19:00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동구 불로동 96-7)

문의전화 062) 228-1199

최대 140만원 할인 혜택
예약 시, SM면세점 3만원권 선불카드 제공

프리미엄 로드샵 바로가기

하나허니문 결혼박람회 추천 상품

클래식 ABW100_KE/OZ/LJ_R
푸켓 6일

더 나가 오션뷰 풀빌라(2+2)

총상품가 1,749,000원~

현지지불 ▶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있음

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

특 전 : 커플 80만원 할인/데일리 감쪽선물 제공/로맨틱 스낵촬영&오토투어 포함/스파마사지 3회

클래식 AXW100_SQ/KE/QR_H
몰디브 6일

하이드러웨이 디럭스 워터빌라 위드 풀

총상품가 3,763,600원~

현지지불 ▶ 몰디브 공항택스(1인 \$25), 현지선택경비

출발일 : 2016년 1월 ~ 토/일/월요일

특 전 : 30분 커플마사지 1회 무료 제공/30분 스낵촬영 무료 제공(50매 - CD로 증정)

■ 여행상품 가격표(내역) 유류할증료(공용비), 전정보합료, 관광진흥기금, 운송/숙/식/시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료 등 반드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됨.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행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합니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택에 따른 자유형 선택관광에 참여가능하여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뜰여행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 여행일정이 변경되는 경우 여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습니다. ■ 관광사전자 등록번호 제2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교통편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영일 보증보험 22억 1천만원 가입 ※ 항공권 또는 항공권 포함 상품 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세요.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의 ● 여행 자재 ● 필수 권고 ● 여행 금지